



코스피	2451.58 (0.00)	코스닥	878.48 (0.00)
금리 (연대 3년)	2.19 (-0.03)	환율 (원/달러)	1075.90 (+6.90) (8일)



[부동산]
시세차의 최대 3억
영등포에 뜬 로또단지
‘신길파크자이’
08

“북미회담, 韓증시 재도약 계기 韓 자본-北 인력자원 시너지”

**짐로저스-구성훈 대표
北 경제전망 관련 논의**

“북·미회담이 한국증시의 재도약 계기가 될 것이다.”

‘상품투자의 귀재’ 짐로저스 로저홀딩스 회장이 진단한 남·북·미 화해 무드가 한국 증시에 미칠 영향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8일 싱가포르에서 구성훈 대표와 세계적인 투자대가 짐로저스가 만나 북미회담 후 북한경제개발 전망과 삼성증권의 북한 리서치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대가로 불리는 짐로저스는 과거 조지 소로스와 함께 퀀텀펀드를 설립해 10년간 4200%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5년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전 재산을 투자하고 싶다고 밝혔고, 2016년에는 북한 화폐와 채권투자를 언급하는 등 북한 투자와 관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왼쪽)와 짐로저스 로저홀딩스 회장이 지난 8일 싱가포르에서 북미회담 후 북한경제개발 전망과 삼성증권의 북한 리서치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련된 대표적인 투자 분석가로도 손꼽히고 있다.

짐로저스는 구성훈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회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경우 한국의 기업과 경제는 새

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회담의 사후조치로 북한경제개발이 본격화 될 경우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의 풍부한 해외경험이 장점으로 작용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이 경우 한국의 자본이 북한의 잘 교육된 젊은 인력 및 풍부한 자원과 결합하면서 큰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화요인임에도 아직까지 북한경제나 투자와 관련된 체계적인 분석자료는 한국 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은행(IB)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시기에 삼성증권이 북한 전담 리서치팀을 만든 것은 한국의 개인투자자나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가 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를 위해서도 매우 시의적절하고 선제적인 조치였다”고 높이 평가했다.

/김민호 기자 kmh0



북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0일 오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 전용기에서 내려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무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金-트럼프, 싱가포르 도착 文 대통령 합류는 없을 듯

북미정상회담 D-1

**金, 에어차이나 항공기 이용
싱가포르총리와 별도면담도**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담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역사적 만남을 앞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회담 장소인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관련기사 2, 3면〉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을 중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로 가는 대신 한국에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빌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항공기를 이용해 평양을 출발,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이 이용한 에어차이나 항공기는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최고위급 인사들이 해외 순방 때 사용하는 전용기로, 이날 새벽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을 출발해 평양에 도착, 다시 김 위원장 일행을 태우고 싱가포르로 향했다.

당초 김 위원장은 이번 싱가포르

르 순방시 자신의 전용기인 ‘참매 1호’를 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옛 소련 시절에 만든 ‘일류신(IL)-62M’을 개조한 참매 1호의 경우 평양에서 4700km 거리에 있는 싱가포르까지 재급유 없이 비행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단종된 비행기인 데다, 기종이 노후돼 만에 하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아예 중국측으로부터 비행기를 임차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별도의 면담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트럼프 대통령도 현지에서 바로 출발해 이날 밤 싱가포르 파야 레바르 공군기지에 도착해 숙소인 샹그릴라 호텔에 묵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리셴룽 총리와도 만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직후 현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비핵화를 하고 무엇인가를 이뤄내야 한다”면서 “북한을 위대하게 만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단 한번의 기회(on e-time shot)”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수백만 명의 마음

을 담아, 평화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고 매우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김 위원장은 그의 국민, 그 자신, 그 가족들을 위해 매우 긍정적인 어떤 것을 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 오전 9시(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우리 시간으로는 화요일 오전 10시다.

당초 하루 이상이 될 가능성도 접쳐졌던 북미정상회담은 하루만에 끝날 수도 있다.

회담은 두 정상이 통역사들만 배석한 채 진행되는 단독회담과, 주요 측근들이 함께하는 확대 정상회담 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또 스위스에서 유학한 김 위원장의 영어실력이 뛰어나 트럼프 대통령과 단 둘만의 대화시간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싱가포르 회담 직후엔 13~14일 한국을, 14일에는 중국을 각각 방문해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회사채 막힌 기업들, CB·BW 발행 붐물

**공모 회사채 발행 실패 부담
주식관련 사채로 자금 조달**

회사채 시장에서 찬밥 신세인 기업들이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영구채 발행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실적과 재무 건전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이 약한 가운데 고금리 주식관련 사채로 급한 불을 끄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 구조조정 국면 심화로 기업들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여전하다”면서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해도 이를 인수할 만한 투자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이 일정 가격에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워런트) 등을 얹어 투자자 찾기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 **금리 매력에 CB·BW 찬밥 옛말?**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한화켈러리아타임월드, 두산건설, 오리엔트바이오 등 3개 유가증권시장사가 BW 발행 공시를 냈다.

지난 1일 한화켈러리아타임월드는 운영자금과 기타자금 조달을 위해 총 500억원 규모의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사채의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모두 0%다. 사채 만기일은

2021년 6월 22일이다.

두산건설은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BW로 조달했다. 수요 흥행도 대박이었다. 지난 8~9일 청약 기간에 두산건설94는 경쟁률 26대 1을 기록하며 높은 인기를 예고했다. 작년 3월 1500억원 규모 BW를 발행할 때 청약 경쟁률이 0.03 대 1에 그쳐 흥행에 실패한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표면이자율을 연 2.5%에서 4%로 높이고,



발행 규모를 15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줄인 것이 흥행요인이다.

실적이 좋아지면서 채권 부도 위험이 거의 사라진 것도 투자 매력을 높인 요인으로 꼽힌다. 두산건설은 올 1분기까지 5분기 연속 영업이익의 흑자를 냈다. 올해 연간 순이익 흑자 전환도 기대된다. 부채비율은 지난 1분기 기준 22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아시아나항공 등 38개사는 CB발행을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CB를 발행했다.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은 795억

원, 제백신과 동양네트웍스, 리드, 에이프로젠KIC 등이 500억원 규모의 CB를 발행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한국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481억원 규모의 사모 무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 **코스닥벤처펀드 덕분에 메자닌 투자 ↑**

기업들이 주식관련 사채시장에 눈을 돌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융합이 부진한 건설, 조선 기업은 사채 발행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업계의 얘기다. 회사채 발행에 나섰다가 실패할 경우 평판 위험만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공모 회사채 발행 실패에 대한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사모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하반기에 금리가 오르면 주식관련 발행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대기업들은 사채 조달 형편이 나은 편이다. 중소기업들의 고민은 더 크다. ‘신용등급 하락→자금조달 금리 상승→투자 어려움→실적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은 사모사채 시장에서도 찬밥신세다.

/김민호 기자

5월 취업자 33만명 증가... 13개월만에 최대

고용부 ‘5월 노동시장 동향’

고용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2개월 간 취업자 증가수가 30만 명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건설업과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구직급여 신청자가 10% 이상 증가하고 있어 일자리 상황 개선을 논하기엔 이르다 분석이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018년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전체 피보험자는 1313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3만2000명(2.6%) 증가했다. 이는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로 지난 4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만7000명(2.4%) 증가한 것에 이어 2개월 연속 30만명 이상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지난달 피보험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기대 이상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용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은 제외된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를 이끈 업종은 서비스업이었다. 서비스업의 지난달 피보험자 증가 규모는 31만7000명에 달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